

디지털 회복 탄력성 투자의 가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모든 조직은 서비스 차질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기능에 투자하면 이를 극복할 수 있습니다.



요약

거의 모든 기업은 지난 2년 동안 서비스 중단, 시스템 장애, 보안 침해를 처리한 경험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일부 기업만이 경쟁사 대비 해당 업무를 더 잘 처리하는 것일까요?

이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Splunk는 11개 국가의 6개 산업군에 종사하는 보안, IT 및 DevOps 리더 2,100명 이상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조사에서는 회복 탄력성 성숙도를 4단계로(초급, 개발, 중급 및 고급) 정의하고, 회복 탄력성에 대한 올바른 투자가 어떻게 성과를 거두는지 조사하였습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회복 탄력성을 제대로 갖춘 조직은 생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번영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세계적인 팬데믹과 경제 및 정치적 불안정성 증가에도 불구하고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연 평균 4천8백만 달러를 절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해 복구나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 등 협의의 회복 탄력성에 집중한 것이 아니라,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다섯 가지 핵심 역량을 개발했습니다.

본 연구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투자 대비 효과를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다운타임 비용을 최소화하고, 변화에 대비하며 보다 효과적인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고 재무 성과 목표를 달성 혹은 초과달성 합니다. 본 보고서는 기업이 회복 탄력성 여정을 시작하기 위한 요소를 식별하고 있으며 가장 큰 혜택을 가져올 수 있는 핵심 동인을 선정하였습니다. 회사의 모든 부서를 아우르는 위기 관리, 사고 대응 자동화 가속화된 릴리스 사이클을 지원하기 위한 협업 등이 대표적 사례입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전체 기업의 거의 절반이 경기 침체로 인한 혼란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48%). 또는 경쟁자가 유발하는 변화에 적응할 준비가 되어있지 않습니다(50%). 또한 거시 경제적 문제, 보안 침해, 인프라 서비스 중단 등 기업의 사업을 불능 상태로 만들 수 있는 요소들은 감소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CISO, CIO 및 CTO는 바로 지금 준비를 해야만 미래에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디지털 회복 탄력성

탄력성은 비즈니스 프로세스 및 서비스를 방해할 가능성이 있는 이벤트를 방지, 탐지, 복구 및 대응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도전 과제: 서비스 차질은 항상 발생합니다

팬데믹과 다른 요소로 인해 현실이 바뀌었고, 기업의 효율적 운영의 모습 역시 변화하였습니다. 하지만 지속적 변화에도 불구하고 고객과 사용자는 계속해서 보안적으로 안전하고, 원활하며 항상 제공이 가능한 경험을 기대합니다. 따라서 변화의 속도는 빠르고, 기업이 고객의 기대를 충족해야 될 필요성은 그 어느때 보다 높아졌습니다.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이 변화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따라서 회복 탄력성에 투자하는 기업들만이 확실한 성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확보한 기업들은 1년 평균 4천8백만 달러의 다운타임으로 인한 손실을 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기업은 일상 운영의 개선이 가능하며, 외부의 충격을 감내하고 빠른 변화를 할 수 있습니다.

방법론

본 조사는 2,100명 이상의 보안, IT, DevOps 및 리더를 대상으로 11개국에서 2022년 10월에 실시되었습니다. 응답자는 이사급 (director) 이상이며, 최소 1,000명의 직원을 보유한 기업으로 한정했습니다.

11개국: 호주, 브라질, 캐나다, 프랑스, 독일, 인도,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영국, 미국

7가지 주요 산업: 금융 서비스, 의료, 제조, 공공 부문, 소매, 기술, 통신

회복 탄력성을 위한 다섯 가지 핵심 역량

우리는 응답자들에게 다섯 가지 핵심 역량에 대한 26개의 질문을 통해 회복 탄력성 능력을 평가하고자 했습니다. 질문의 내용은 핵심 역량의 하위 역량을 다루고 있으며, 하이브리드 및 멀티클라우드 환경에 대한 데이터 커버리지, 경보의 분류, 보안, IT, DevOps 등을 아우르는 데이터 공유 등을 살펴보았습니다.

가시성

기업의 구성원이 기술 환경을 얼마나 잘 볼 수 있는가? 데이터의 품질과 충실도, 데이터 커버리지의 완전성 등

탐지

잠재적 문제를 식별하기 위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조직이 데이터를 활용하여 탐지 범위 및 경보를 비롯한 잠재적인 문제를 식별하는 정도

경보에 대한 조사

잠재적 문제 검색 및 분석 가속화를 위해 데이터를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 구체적으로는 데이터 보강, 위협 헌팅, 로그, 메트릭스, 트레이스 서치 등.

대응력

보안, IT 및 DevOps 팀이 일상적인 문제 또는 장애에 얼마나 빨리 대응하는가?

협업

담당자와 담당자가 사용하는 도구가 업무적으로 보안, IT 및 DevOps 전반에 걸쳐 협업을 촉진하는가?

회복 탄력성을 높은 수준으로 확보한 기업 연 평균 4천8백만 달러 다운타임 비용 절감.

기업들은 회복 탄력성을 재정의하고 있습니다

과거 기업의 리더들은 회복 탄력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정의해 왔습니다. 감사, 리스크, 컴플라이언스 등이 대표적이었고, 재해 복구 및 비즈니스 연속성 계획은 관리 목적으로 적용이 당연시 되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회복 탄력성은 전략의 요소가 되었으며, 기업의 계획, 의사 결정 및 기술 영역에 녹아들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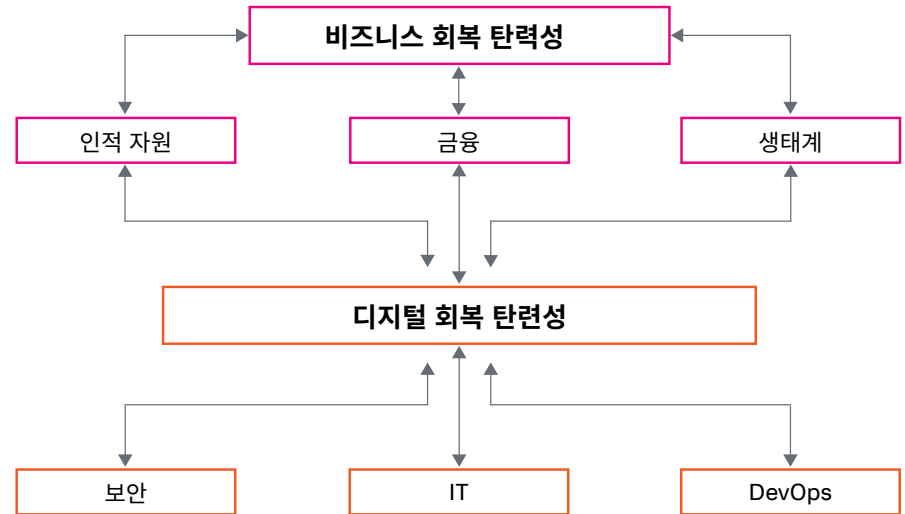
회복 탄력성이 훌륭한 기업은 문제의 예방 및 복구가 가능하며, 사업의 연속성과 번영을 구가할 수 있으며, 새로운 운영 모델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단지 문제점을 극복하고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환경속에서 앞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업의 회복 탄력성 확보를 위해서는 디지털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디지털은 기업 운영 지원을 넘어서 핵심 성장 동력으로 부상했습니다. 즉, 기업에서 발생하는 서비스 차질 및 디지털 시스템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인해 기업은 과거 대비 더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있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해야 하지만 적합한 인재를 찾고 유지하며, 건전한 재정을 확보하고, 신뢰할 수 있는 파트너와 공급업체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디지털 자원이 필수적입니다. 기업이 점점 더 디지털화됨에 따라 디지털 시스템의 회복 탄력성이 기업의 회복 탄력성으로 직결되기 때문입니다.

비즈니스 회복 탄력성을 위한 프레임워크



비즈니스 회복 탄력성에는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디지털 비즈니스 회복 탄력성에는 많은 요소가 필요합니다. 특히 디지털 회복 탄력성은 보안, IT 및 DevOps를 통합하여 비즈니스 탄력성의 기초를 이룹니다.

회복 탄력성 성숙도 달성을 위해서는 보안, IT, DevOps 등 모든 기술 관련팀의 참여가 필요합니다. 최근 발생한 시스템 장애 및 보안 침해 등을 통해 각 기능별로 분화된 기존의 접근 방식이 얼마나 많은 위험을 수반하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컨셉 갭(Concept Gap)의 대표인 리처드 마샬(Richard M Marshall)은 “전통적으로 개발자가 무언가를 만들어서 벽으로 막힌 다음 방에 있는 운영 인력에게 던지고, 운영 인력은 자신들이 받은 내용이 잘 돌아가기만 기대하고, 또 다음 방에는 보안 인력이 있는데 이들과 이야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라고 설명합니다.

미래 지향적인 기업은 이러한 전통적 접근 방식이 효과가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적이고 효율성 높은 기업들은 다양한 업무 영역을 아우르는 통합형 회복 탄력성 전략을 구축하여 여러 가지 문제를 관리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성숙도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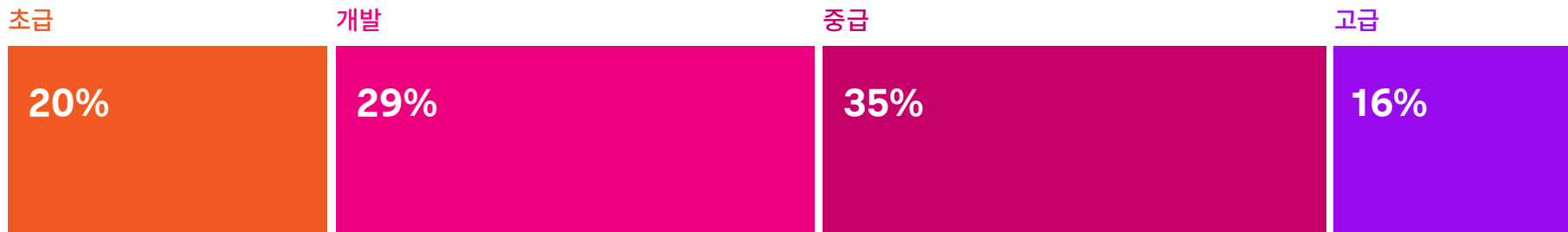
새로운 접근 방식에서는 기술과 보안 리더가 기업의 회복 탄력성 태세를 재평가해야 합니다. 회복 탄력성에 대한 투자 가치를 명확하게 표현하고 성숙도 곡선을 따라 발전해 나가는 모습을 회사의 임원과 경영진에 보여 주어야 합니다.

액센추어의 메니징 디렉터인 셴 크랩트리(Sean Crabtree)는 “모든 기업은 지금 기술 기반 기업이거나 미래에는 기술 기반 기업이 될 것입니다. 기업의 제품을 강화할 수 있는 회복 탄력성을 구축하고, 이러한 역량을 주도할 수 있는 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설문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의 성숙도 단계는 각기 다릅니다. 5개 중 1개의 기업은 여정의 시작 단계에 있으며, 6개 중 1개의 기업은 고급 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업은 중간 단계에 있으며 일부 영역에서는 강점이 있으나 아직 많은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기업은 다양한 문제가 발생해도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방법론 참조\]](#). 예를 들어, 이러한 기업은 높은 가시성, IT, 보안 및 DevOps의 다양한 데이터 소스에 대한 커버리지가 높으며, 대응 능력이 높습니다. 또한 머신러닝과 자동 복원을 통해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궁극적으로 이러한 역량은 매출과 수익 등의 측면에서 더 나은 사업 결과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 성숙도



중요 발견 사항

회복 탄력성에 대한 투자는 네 가지 방식으로 성과를 가져옵니다. 경쟁사와 비교하여 고급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갖춘 기업은 더 많은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 다운타임 비용 최소화
- 변화를 위한 준비
- 효과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재무 성과 목표 달성



다운타임 비용 최소화

모든 기업이 상당한 양의 다운타임을 경험합니다.

다운타임을 완전히 피하기는 어렵습니다. 서비스 중단, 보안 침해 등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은 고객의 경험, 기업의 수익, 생산성 등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이러한 문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본 조사에 따르면 매년 평균 240시간 또는 10일의 다운타임이 발생합니다. 또한, 성숙도 수준에 상관 없이 다운타임은 모든 기업에서 일관성 있게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즉, 기업의 준비도 정도에 상관없이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과의 싸움은 지속적으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어떤 유형의 위협 또는 이벤트가 기업을 혼란에 빠뜨릴 가능성이 있냐는 질문에 대해서, 4명 중 1명은 인프라 중단, 그리고 5명 중 1명은 랜섬웨어를 언급했습니다.

다운타임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1시간의 다운타임은 약 36만5천 달러의 손실이기 때문이며, 계산해 보면 1년에 최대 8천7백만 달러의 다운 타임 비용이 수익 및 생산성 차원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기업의 연 평균 다운타임 비용
연간 8천7백만 달러 수익 및
생산성 차원의 손실 발생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기업은 연간 서비스 차질로 인한 비용 연간 약 4천8백만 달러를 절약합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하면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은 "반드시 일어나고, 언제 발생할까의 문제"입니다. 따라서 회복 탄력성에 투자하는 기업은 서비스 차질의 영향을 줄이고 경쟁사 대비 큰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높은 수준의 회복 탄력성을 가진 기업은 다운타임 비용이 훨씬 적게 발생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낮은 그룹의 1억 1천만 달러 대비, 연간 6천2백만 달러만 발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차이가 나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더 높은 가시성과 더 높은 수준의 조사 역량을 통해, 선도적 기업들은 전사적 영향도에 따라 대응의 우선순위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수익 창출과 직결된 애플리케이션의 백업과 정상 운영에 집중하고 내부의 소수의 팀에서만 사용하는 온라인 협업 도구에 대해서는 나중에 조치를 취하는 방식을 택합니다.

계획되지 않은 다운타임 연간 비용



마셜의 조언처럼 발생을 예측하기 어려운 일에 대해서 기업들이 대비하게 되면 예상하지 않은 문제가 발생할 경우 영향도를 줄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넘어지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은 무엇이 잘못될 수 있는지 파악하고 잠재적 문제 요소를 파악하고 내가 무엇을 모르는지를 파악하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산업군 인사이트: 금융 서비스 다운타임 비용이 가장 높은 산업

다운타임은 여러 부문에 걸쳐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그러나, 공공 부문, 기술, 통신, 의료, 리테일 및 제조와 비교하여 금융 서비스 기업의 다운타임 비용은 연간 약 1억 4천 1백만 달러로 가장 높은 수준을 보였습니다. 현재 디지털 뱅킹 및 온라인 거래 채택률이 높아지면서 디지털 서비스 중단은 매우 높은 수준의 손실로 이어질 수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금융 서비스 기업은 연간 **1억 4천1백만 달러**의 다운타임 손실에 직면하며, 이는 여타 업권의 **5천4백만 달러**의 손실보다 훨씬 높은 수준

주요 동인:

다양한 부서를 아우르는 위기 관리가 핵심

우리는 Log4shell 또는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공격을 통해 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이 발생하면 보안, IT 및 DevOps 전반의 팀이 위기를 조율해야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기업은(96%) 적어도 자신의 제품과 서비스 일부에 대해 전사적 위기 관리를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못한 기업(4%)은 훨씬 더 많은 고통을 겪게 됩니다. 준비가 되지 않은 기업에게 다운타임은 연간 2억1천1백만 달러의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본 연구에 따르면 위기 관리는 회복 탄력성 향상을 위한 프로세스와 도구를 구현하는 시작점입니다.

변화를 위한 준비

대부분의 기업은 아직 변화에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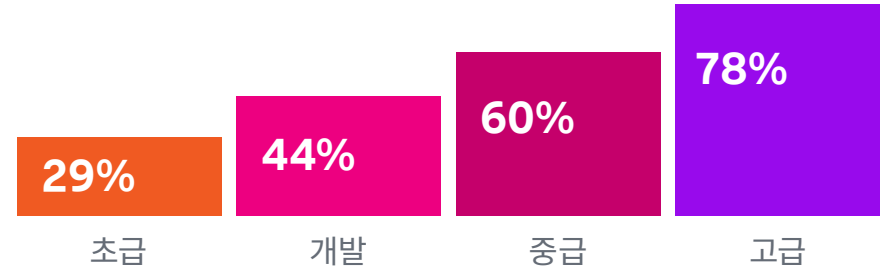
다운타임으로 이어지는 사건 사고 외에도 경기 침체나 특정 산업의 붕괴 등 더 큰 거시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기업의 생존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적응하지 못하는 기업은 더 이상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전체 기업의 절반 정도만 큰 변화가 닥칠 때 운영 방식 및 고객 응대 방식을 변화할 준비가 되어 있다고 밝혔습니다. 구체적으로, 경기 침체시 수요 문제 해결 가능 52%, 경쟁사에 대한 대응 가능 50%로 나타났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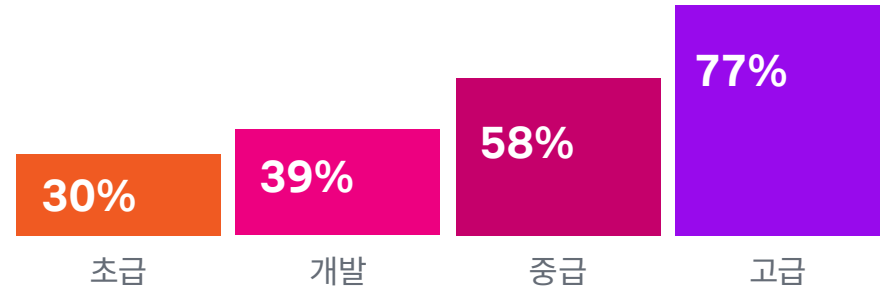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 2.5배 더 잘 준비

상기 결과를 회복 탄력성 성숙 단계별로 분석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의 4분의 3 이상이 경기 침체(78%)와 경쟁사로 인한 변화에 대응(77%)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낮은 기업은 1/3(30%)만이 준비가 되었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침체시 수요 변화 대비



경쟁사에 의한 변화에 대비



회복 탄력성 역량이 높아질수록 기업은 탄탄한 신뢰성과 보안성을 확보하여 혁신에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달리 말해,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새로운 기능 개발 및 제품을 전달하는 새로운 방법을 찾는 데 집중할 수 있으며, 새로운 시장으로 확장하거나 새로운 기회를 더욱 잘 포착할 수 있습니다.

변화의 시대의 승자는 빠르게 적응하고 시장 변화를 빠르게 활용하는 기업입니다. 예를 들어 인력 솔루션 회사인 맨파워그룹(ManpowerGroup)은 40만 명의 고객과 340만 명의 직원을 보유한 190억 달러 규모의 사업체입니다. 코로나 기간 동안 이 기업은 인재 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 기업의 CISO 인 랜디 헤럴드(Randy Herald)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투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면서, “가시성은 우리의 운영에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우리의 장기 전략에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혁신에 있어 중요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주요 동인:

자동화는 기업의 건전한 상태 유지에 도움

그리고 변화의 시대에는 기업에게 취약성이 발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자원에 대한 제한이 발생하면, 기업은 더 똑똑해지고 더 효율성을 높여야 합니다. 자동화를 시작하십시오.

건정성이 높은 기업은 자동화를 사용하여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더 많은 작업을 할 수 있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여타 기업 대비 더 높은 자동화 도입률을 보였습니다. 75%가 워크플로우 절반 이상의 자동화를 했으며, 회복 탄력성이 낮은 기업의 경우 그 비율이 39%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머신 러닝 및 자동 복원을 통해 기업은 문제를

예측하고 예방할 수 있습니다. 자가 치유 시스템이 자동으로 업무를 수행하기에, 메모리가 부족할 때 응용 프로그램을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자동화된 플레이백을 통해 맬웨어에 감염된 호스트를 격리할 수 있으며, 악의적인 활동이 의심되는 계정을 일시 중지할 수 있습니다. 모든 제품에 머신 러닝 및 자동 복원을 적용한 기업은 경기 침체시 수요 감소에 대비할 가능성이 66%로, 그렇지 않은 기업의 34%와 비교하여 두 배 높은 준비태세를 보였습니다.

효과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모든 기업은 가치 창출을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은 기술 리더들이 쉽게 해낼 수 있는 일처럼 보이지만, 제대로 구현하기가 쉽지만은 않습니다. 대부분의 응답자(61%)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의 절반 미만이 지난 2년 동안 유지되고 긍정적 효과를 보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코드 리팩토링부터 인프라 정비 등 대규모 프로젝트로 인해 오히려 복잡한 문제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예를 들어 클라우드 환경에서는 공격 표면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모니터링해야 할 서비스의 수는 훨씬 더 많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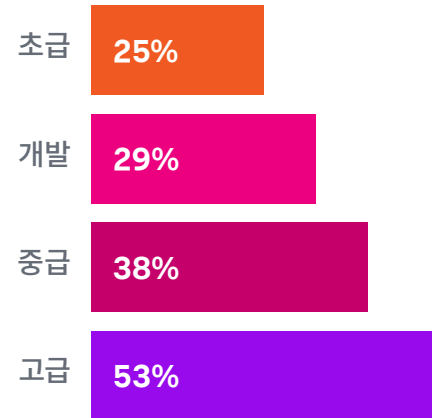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이 더욱 성공적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이러한 상황에서 성공할 확률이 두배 더 높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여타 기업과 비교하여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서 확연한 차이를 보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성공률은 53%로 회복 탄력성이 낮은 기업의 25%보다 높은 성공률을 지난 2년간 기록하였습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유연성과 확장성 확보를 위한 역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평균적으로 워크로드의 64%를 클라우드에서 실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성공

대부분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가 지난 2년간 긍정적이고 지속적 영향이 있었다고 보고한 기업



산업군 인사이트: 공공 부문 및 통신업계는 뒤처져

공공 부문 내 조직(19%) 및 통신(16%) 기업은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가능성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투자 부족 및 지속적으로 확장된 레거시 기술에 대한 의존도 때문에 서비스 현대화가 어려운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가용 자원이 부족한 기업들은 취약성이 더 높을 수 밖에 없습니다. [Splunk 공공 부문 예측 2023 보고서에 따르면](#), 랜섬웨어 사고가 발생하면 교육 기관의 경우 2백7십만 달러의 비용이 발생했으며, 이는 민간 부문 평균인 1백8십만 달러의 비용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프로젝트 성공 산업별



19%
공공 부문



16%
통신



35%
기타 모든 산업

주요 동인:

더 빠른 릴리즈 속도, 보안 그리고 IT의 지원

소프트웨어 릴리즈 과정에서 보안 및 IT운영팀은 일반적으로 반대의 목소리를 내거나 릴리즈를 지연시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협업은 성공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위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입니다. 보안 및 IT 팀이 모든 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릴리즈 속도 개선을 위한 이니셔티브를 지원하는 회사의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이 성공할 확률은 39%로 그렇지 못한 기업의 21%와 비교하여 두 배 정도 성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더 빠르고 높은 품질의 릴리즈는 디지털 혁신을 가속화 합니다. 이 조사 결과는 기업 내의 모든 기술 부서가 동일한 목표를 향해 신속하게 움직여야만 성공할 수 있음을 확실하게 보여줍니다.

재무 성과 목표 달성

높아지는 기대 수준

기업은 다운타임을 줄이고, 거시적 변화에 적응하고,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회복 탄력성에 투자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는 투자자를 위해 투자 대비 재무 성과를 보여 주어야만 합니다.

최근 예산 삭감 및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시장 변동성이 높으며, 재정적 압박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러한 환경에서 투자자의 기대를 충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그렇지 않은 기업 대비 총 매출에서 큰 차이를 보입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비교한 결과 작년 회계연도 기준 회계 목표 달성 및 초과 달성에 있어 약 17%의 차이가 나타났습니다.

본 연구에 포함된 상장 기업의 경우에도 주가 상승 폭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가 보고되었습니다. 2020년 1월 이후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의 주가 상승 확률은 82%로 그렇지 않은 기업의 70%보다 주가 상승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가 상승

상장기업의 주가 상승 변화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2년 1월 1일까지의 주가임

82%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의
성장 확률

70%

회복 탄력성이 낮은 기업의
성장 확률

이러한 결과는 두 가지 사실을 시사합니다.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은 회복 탄력성에 대해 적절한 투자를 집행했고, 또한 회복 탄력성 역량을 통해 큰 가치를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 압박이 계속 심화되면서 기술 및 보안 리더는 회복 탄력성을 비용으로 간주하는 관점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그리고 긍정적인 수익 확보를 위한 투자라는 점을 인식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래를 위한 회복 탄력성

이 연구 결과는 회복 탄력성에 대한 투자가 ROI가 높다는 것을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가시성, 탐지, 조사, 대응 및 협업 역량의 강화는 다음과 같은 커다란 효과를 가져옵니다.

- 다운타임 비용 최소화
- 변화를 위한 준비
- 효과적인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
- 재무 성과 목표 달성




끊임없는 변화와 불확실성의 현실을 감안할 때, 기술과 보안 리더는 상기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투자하여 기업의 회복 탄력성에 대한 성숙도를 높여야 합니다. 이러한 노력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먼저 전 부서를 아우르는 위기 관리 개선, 머신 러닝과 자동 복원의 활용 보안 및 IT 역량 강화를 통한 릴리즈 속도 개선 등이 필요합니다. 탄탄한 회복 탄력성 기반을 다질 수 있다면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어떠한 상황에도 준비가 되어있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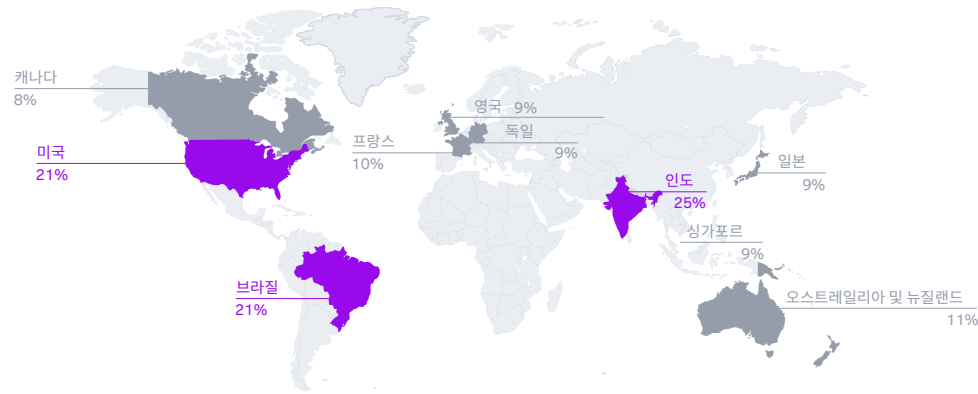


부록

가장 발전된 국가는 어디입니까?

본 연구에 포함된 11개국 중 인도, 브라질, 미국에서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  회복 탄력성이 더욱 높은 기업
-  회복 탄력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기업
-  조사되지 않음



가장 회복 탄력성이 높은 산업은 무엇입니까?

본 연구에 포함된 산업 중 금융 서비스, 기술 및 제조업에 회복 탄력성이 높은 기업이 가장 많았습니다.



22%

금융 서비스



20%

기술



18%

제조



15%

소매업



9%

의료



7%

통신

Splunk의 관점 및 디지털 회복 탄력성
개선을 위한 방법을 더 알아보십시오.

